

Magazine

새벽종

2023 07·08 제9호

기록의 가치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특집

새벽종

2023 07+08 제9호

CARE CARD



 새마을운동중앙회

ISSUE NO.9
ISSN 2799-3343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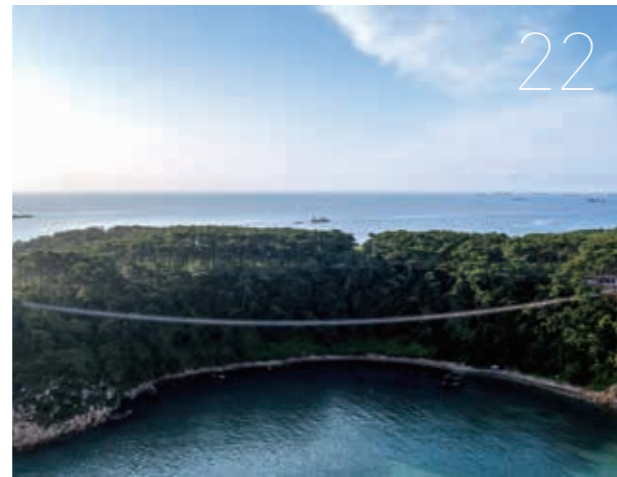
Prologue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재의 교훈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설계합니다. 기억은 때론 희미해지고 또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보단 기록이 중요한 이유죠.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보존해야 할 인류의 가치로 인정받은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기적을 이끄는 새마을운동을 꾸준히 기록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Contents

2023 07+08 제9호



06	Focus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열려
12	펼침 숫자로 살펴보는 새마을운동기록물
14	어울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기록물, 10주년을 맞이하다
18	Interview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지속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표” -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22	누림 청량한 자연과 화려한 도시 매력의 공존 - 울산광역시 여행



26	새마을 사람들 1 ‘함께’의 힘으로 ‘새마을운동정신’을 꽃피우다 - 강원도 평창 대관령면협의회 & 부녀회
30	새마을 사람들 2 새마을운동은 신뢰와 기다림입니다 - 「제1회 경기도새마을대상제」 대상 배재윤 파주읍협의회 새마을지도자
34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청년들이 만들어 갈 새로운 미래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출범
38	지구촌새마을운동 ‘세계로 뻗어 나가는 잘 살아보세!’의 외침 - 동티모르 & 우간다
42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지금은 비건 시대



46	중앙회 소식
47	시·도 소식
50	현장은 지금
58	새마을 통통통

발행일

2023년 7월 25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곽대훈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거진 <새벽종>을
휴대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Webzine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열려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에서는 새마을운동 협력국 29개국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새마을정신과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획기적인 도약과 미래 비전을 도모했다.

글·사진 홍보팀



지구촌새마을운동 실천을 위한 소통의 장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장·차관,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구호 아래,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실천을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부산광역시 새마을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2023 Global Saemaul Undong Ministerial Meeting)'가 부산 벅스코에서 진행됐다.

이번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는 인류 공영을 위한 46개 협력국의 화합과 연대, 새마을정신과 성공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의 획기적인 도약과 미래 비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46개 협력국 중 29개국 장·차관이 참가했다. 참가국 중 27개 국가는 세계박람회(BIE) 회원국이다.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위한 열띤 토의 이어져

7월 5일 개막식에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29개국 장·차관, 주한 외국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환영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개회사, 대통령 대통령 치사(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대독), 사키야시 라세부 디토카 피지 장관 축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기조연설,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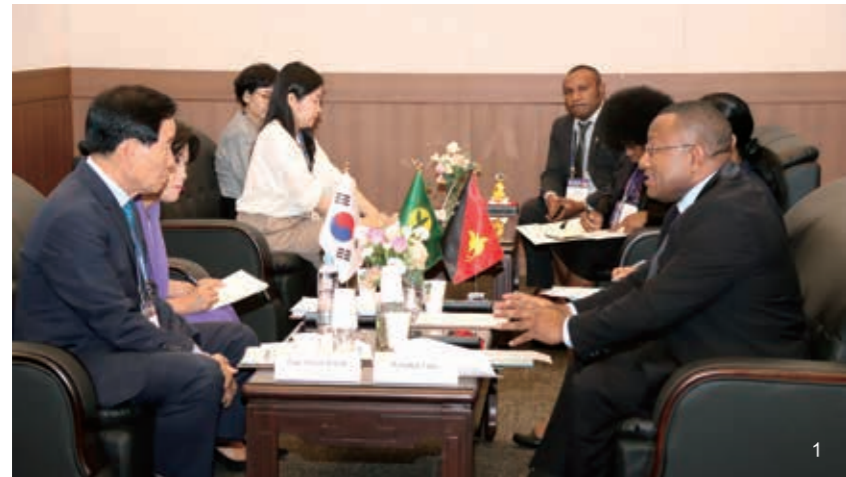
개막식 이후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개회사와 의제 설명을 시작으로,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한국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과 현지화 전략' 주제 발제, 동티모르와 우간다의 사례발표,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관한 각국 장관들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에 기여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국가 정책화에 주춧돌이 되는 선언문을 채택하여 발표했다.



3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46개 협력국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이 모든 인류가 지닌 보편적 삶의 가치와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한다고 평가했다.



1

1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에 참석한 키노카 페오 파푸아뉴기니 국가기획감독부 차관이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만나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와 현지화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2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이 부산 벅스코에 설치된 미디어아트존에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 영상을 관람하는 모습

3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에서 29개국 장·차관들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개회사를 듣고 있는 모습

4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에서 (사진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사키야시 라세부 디토카 피지 농어촌개발재난관리부 장관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4



개막식 이튿날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에서는 29개 글로벌 협력국 장·차관과 주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도국 지역개발과 새마을운동'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각각 동시에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계에 전하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73년부터 2022년까지 149개국 65,0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해 새마을운동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를 통해 라오스, 우간다 등 21개국에 102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마을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올해도 10개국에서 44개 시범마을을 조성해 새마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온두라스에 4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중남미로 새마을운동 확산을 시작했으며, 2020년도에는 피지, 2021년도 동티모르, 우간다, 2022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등 매년 지구촌새마을운동을 펼치는 개도국들을 확대해 왔다.

새마을운동은 유엔 개발정상회의(UNDP)에서 지속가능개발 목표(UN SDGs)* 이행을 위한 최적 수단으로 선정되는 등 개도국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모형(모델)으로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이다. 또한 올해는 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1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첫 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새마을운동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가치를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에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우간다 지방정부부 장관은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 정신에 기반한 훌륭한 지역사회 개발모델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이후 사회 전반에 역동성이 넘치고 있다”라며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까지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빈곤종식, 기아 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 등 17개 목표/16~30년의 개발협력 지원
 ※ 전 세계 개도국 농촌인구 32억 명 중 25%인 8억 명이 빈곤인구(15, 세계은행)

5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이튿날인 6일에는 29개 글로벌 협력국 장·차관과 주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선언문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들은 2023년 7월 5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지구촌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협력국 장관들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이 모든 인류가 지니는 보편적 삶의 가치와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한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I . 우리는 국가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한다.
- II . 우리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모델화하고, 자생적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III .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제기구, NGO 등과 지속 협력한다.
- IV . 우리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장관회의를 격년제로 개최한다.

2023년 7월 5일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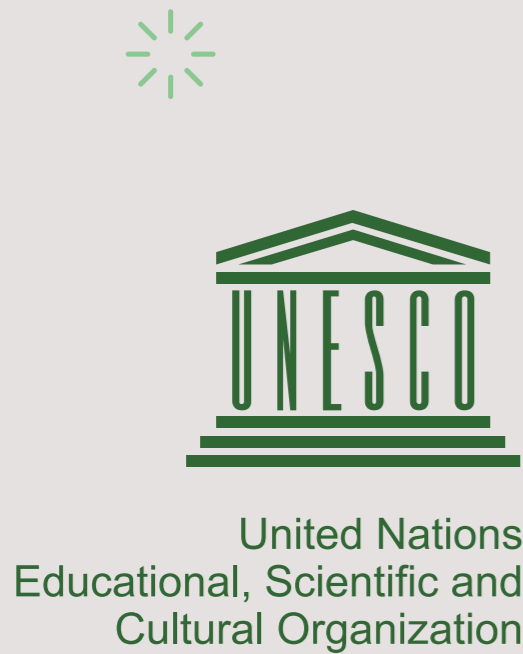


새마을운동중앙회

숫자로 살펴보는 새마을운동기록물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기록물로, 정부 및 행정부처의 문서부터 마을단위 기록물, 성공사례, 새마을교육 및 연구자료 등이 있다. 빈곤퇴치, 농촌개발, 의식개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새마을운동이 이뤄낸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총 22,084건의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지난 2013년 6월 18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글. 편집실



10th

2023년 6월 18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에 기록된 성과

빈곤퇴치, 농촌개발,
의식개혁, 여성 사회참여 확대,
주민들 리더십 개발



34,000

여 개 마을
전국 34,000여 개 마을에서 전개된
새마을운동 성과 기록



288

건
대통령비서실
생산 기록물

마을 단위
새마을운동기록물



750

건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 및 편지

2,645

건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생산 기록물



시민·단체·기업의 편지
및 기증서

160

건

중앙 및 지방 행정부처
생산 기록물

14,199

건

총 22,084

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기록물, 10주년을 맞이하다

새마을운동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농촌개발의 성공사례로 널리 알려졌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 모델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올해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년을 맞은 새마을운동기록물의 가치와 의의를 살펴본다.

글: 편집실 사진: 김병구



지난 6월 18일 중앙회 돌뜰 앞에서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김종복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조승희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박경수 새마을문고중앙회장, 김원학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시도청년새마을연대회장들이 직접 작성한 축자를 타임캡슐에 넣는 퍼포먼스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기록유산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행동하고 그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발전해 왔다. 기록유산은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훼손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전쟁과 사회적 변동, 약탈과 불법 거래 등으로 이미 많은 기록유산이 영원히 사라졌거나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1992년 '세계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세계기록유산사업을 창설했다. 이 사업은 최적의 기술을 통해 문화적 가치가 담긴 기록 유산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누구나 기록유산을 볼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제고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근대화에 관한 종합적 기록, 새마을운동기록물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 요인으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을 '새마을운동기록물'이라 말한다.

이 중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생산된 22,084건의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대통령 비서실, 중앙 및 지방 행정부처, 마을단위,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 생산처별 기록물과 문서, 책자, 잡지, 앨범, 사진, 릴 테이프, 동영상 필름 등 형태별 기록물, 대통령 연설문, 행정부처 새마을 사업 결재 공문, 마을단위사업서류,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발표 원고 및 편지 등 내용별 기록물로 나뉜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대한민국 전 마을에서 전개된 근대화에 관한 종합적인 기록이다. 행정, 역사, 향토, 문화 및 빈곤퇴치, 마을환경개선, 새마을정신 개발, 농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주민들의 리더십 개발 등 다방면에 걸친 내용이 수록된 실증적 자료를 통해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기획 배경과 추진 과정, 성과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가 주목한 농촌개발 모델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의 개발기구나 석학들의 관심을 받았다.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서울에서 새마을운동의 성취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호평을 받은 이후 유네스코 본부가 주관한 학술대회가 여러 차례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식이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개최됐다. (사진제공: 경상북도새마을회)

개최되었다. 해외 석학들이 대거 참가한 1981년 국제회의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초청연수, 개발도상국 새마을 시범사업 등이 널리 추진되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개발도상국 원조가 늘어나면서 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 모델로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국제개발기구나 개발연구학자들은 한국의 농촌 근대화 경험에 주목했다. 2010년 11월 8일 컬럼비아대학의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 교수는 '세계 빈곤퇴치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지구촌 빈곤퇴치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을 제시하면서 이 운동이 세계 곳곳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 모두 개발도상국 농촌의 기아 해결과 소득증대 모델로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새마을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그동안 정부는 『훈민정음』, 『일성록』, 『동의보감』, 『의궤』 등 역사 깊은 기록유산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2011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의 등재 신청은 2011년 6월 당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제안 덕분에 시작되었다. 전택수 사무총장은 취임 후 방문하는 개발도상국마다 새마을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퍼포먼스

운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데 놀랐다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선정에는 엄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등재 신청은 2년에 한 번이며, 나라마다 두 건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2011년 국가기록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소장 중인 새마을운동기록물 3,015건을 국가지정기록물(제6호)로 지정했다. 같은 해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기록물로 『난중일기』와 함께 『새마을운동기록물』을 확정, 2012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등재를 신청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유네스코 심사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유네스코에 권고했고, 그해에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농촌 주인이 주체가 된 운동, 세계가 인정하는 기록물이 되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한국에서는 11번째로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심사기준은 진정성, 독창성, 세계적 중요성,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 대상과 주제, 형태와 양식, 사회적·정신적·공동체적 중요성 등을 평가하는 비교 기준 등이다. 여기에 맥락 관련 정보로 희귀성, 완전성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이러한 항목들에 모두 충족되었으며,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임이 증명되었다.

평가 내용을 살펴보자면, 1970년대 한국 농촌이 근대화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사실 그대로 담고 있는 1차 자료이고 원본인 점이 진정성 평가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농촌 빈곤의 해소, 주민의 역량 계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모범적인 사례가 돋보인다. 누가 등 떠밀어 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와 이웃, 그리고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여기에 농촌 주민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을 발전을 이룬 스토리와 남성 위주인 사회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이 담겨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새마을운동 방식은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무상원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조 모델인 점이 세계적인 중요성으로 인정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신적·공동체적 중요성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다. 개인 차원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농민과 농촌이 노력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기록물은 큰 의의를 지닌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한 국제자문위원회는 한국의 새마을운동기록물에 대해 “근면·자조·협동의 깃발 아래 1970년부터 1979년에 걸쳐 추진된 협력적 농촌사회 변혁의 한국 모델인 새마을운동은 빈곤 해소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 운동은 한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데 토대를 닦았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 과정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된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이제 여러 국가와 공유하며 전 세계 빈곤퇴치 및 농촌개발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함께 잘 사는 지구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모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

주요 연혁

- 1983. 04.26. 새마을역사관 개관(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내)
- 1990. 01.01. 새마을전시관을 “새마을역사관”으로 개칭
- 2009.~2013. “새마을운동자료 DB구축” 사업 추진
- 2011. 12.27.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제6호) 지정 3,015건
- 2013. 06.1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2,084건
- 2015. 01.27. “2014년 국가기록관리 유공기관” 수상
- 2016.~2018. “새마을운동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
- 2019.~2022.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사업 추진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식 열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6월 18일 중앙회 돌돌 앞에서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김종복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조승희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박경수 새마을문고중앙회장, 김환학 사무총장을 비롯해, 17일 전국청년새마을연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배진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장과 100여 명의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이 참석했다.

당일 진행된 행사는 각 시도청년새마을연대회장들이 직접 작성한 족자를 타임캡슐에 넣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새마을연대의 밝은 미래와 새마을운동의 도약을 위한 염원을 담은 독수리와 연을 하늘 높이 띄우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경상북도새마을회(회장 이종평)는 지난 6월 19일 구미

복합스포츠타센터에서 2,000여 명의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의회 의장, 임종식 교육감,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 김장호 구미시장 등 유관기관단체장과 김종복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을 비롯한 주요인사 및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한 가운데 새마을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생 각하고 새마을운동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중앙회를 비롯한 18개 시도새마을회는 국가발전의 염원과 의지가 담긴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활동 사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생산해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지속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표”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했다. 빈곤국이었던 나라가 이제 세계 다른 나라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나라가 되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추천하고 등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전택수 교수를 만나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이소연 사진. 김병구

Q – 교수님께서 10년 전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큰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창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던 시기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그 혜택을 직접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의 빈곤과 미국의 원조를 기억하는 세대니까요.

Q –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8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등재 과정과 당시의 분위기 등이 궁금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는 2년에 한 번, 홀수 해에 합니다. 회원국에서 2점만 선정해서 후보로 올릴 수 있어요. 올라온 후보들로 본선 심사를 하는데, 철저히 비밀회의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록유산의 종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이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적극이었습니다. 시작은 등재되기 직전의 심사위원회부터였으니까요.

Q –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새마을운동기록물이 등재되기 직전 2011년 맨체스터 제10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였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일성록과 광주민주항쟁기록물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지는 비밀회의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결과발표 전이었는데, 친분이 있었던 당시 심사위원장이 저를 살짝 부르더니 귀에다 “기록유산 선정이 확정되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후 폐막 파티를 할 때였을 거예요. 위원회 쪽에서 한국에 차기 회의 후보로 올릴만한 기록유산이 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순간 ‘새마을운동’이 생각나 살짝 정보를 흘렸죠. ‘살짝 흘렸는데, 덤덱 문다’라는 말이 있죠? 위원회 쪽에서 그 기록물을 다음번 심사위원회에 꼭 올리라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차기 회의를 한국에서 하자고까지 제안했죠. 국제회의 개최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그 즉시 외교부에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외교부의 답을 받고서 그 자리에서 2013년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한국으로 정해졌습니다.

Q – 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던 당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어땠나요?

애초에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심사위원회 본선 심사에 오른 것 자체가 심사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선정 자체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공통의 화두는 바로 빈곤 탈출이기 때문이죠. 새마을운동기록물은 그 빈곤에서 어떻게 탈출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필요 없는 기록물이며, 전 세계의 기록물이다”라고 말입니다.

Q – 새마을운동과 그 기록물은 어떠한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랜 시간 전 세계는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극빈국이었죠. 그랬던 나라가 짧은 기간에 빈곤에서 탈출하고, OECD에 가입했으며, 첨단국 발진된 나라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기록이 바로 새마을운동기록물에 모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지난 세대들이 남겨둔 기록에 담겨 있는 문제해결 방식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빈곤을 탈출하고,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준 이 새마을운동기록물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Q – 새마을운동기록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새마을운동 부스’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MZ세대들은 중요한 기록물을 글자로 읽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새마을운동 부스에서는 AI, 챗GPT, 메타버스, 버추얼 등의 기술을 이용해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과 같은 체험형 부스를 선보이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 형식이어도 좋고 미션 수행 형식이어도 좋겠죠. 직접 참여해 보는 과정을 통해 가상의 새마을운동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Q – 과거 조선의 왕실도서관인 장서각 소장 도서의 디지털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을 주도하는 등 학교경제교육과 문화예술의 경제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 기록들은 지방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보물들을 전시관에만 소중히 전시해 놓는다면 그 기록은 더 이상 살아있는 기록의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들이 이 기록을 접하고 보고 활용하게 하기 위해선 그들이 보는 방식



1



2

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시작이 바로 전자문서화이고 디지털화입니다.

Q – 교수님께서서는 전공이 경제학이죠? 어떤 계기로 문화 예술 분야, 그중에서도 향토 문화나 새마을운동과 같은 지역과 관련된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데요? 과거 정신문화연구원,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의 정체성 혼란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인 내가 정신문화연구를 한다니... 그러던 차에 주변에서 전혀 뜻밖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문화적 요인이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요인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만났을 때 이토록 빠르고 눈부신 경제발전의 결과를 만들어 냈으니까요. 집단 문화에서 리더의 중요성, 가족의 복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가능한 문화, 직장 생활에서의 상하식 서열과 개인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해외에까지 나가 나라를 일으키고자 했던 산업 역군들의 노력은 외국의 어떤 경제 발전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선조들이 남겨준 전통문화가 교육이 되고, 그 교육이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문화예술과 경제학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함께 있어야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융합의 영역인 것입니다.

Q – 끝으로 전국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새벽종> 구독자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매번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만이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하나하나가 모여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 하나씩만 찾으세요. ☺

1 새마을역사관 내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료관 전경

2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 전택수 교수

청량한 자연과 화려한 도시 매력의 공존

울산광역시 여행

고래로 인연이 깊은 울산은 시시각각 다양한 매력을 내뿜는다. 동해의 청량한 바다와 남해의 잔잔한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데다 눈으로는 기암괴석이 떠 있는 기묘한 바다를, 귀로는 파도와 몽돌이 연주하는 협주를 즐길 수 있다. 또 밤이면 산업도시 특유의 불빛이 도시를 화려하게 빛낸다.

글. 편집실 사진. 울산광역시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해안공원, 대왕암

울산의 매력을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단연은 대왕암과 그 일대가 아닐까. 반짝이는 윤슬 위로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대왕암은 그 경치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해 '제2의 해금강'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여기에 천년의 세월을 자랑하는 해송과 개성 넘치는 기암괴석, 보드라운 모래사장까지 더해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공원 입구부터 시작되는 해송을 따라 걷다 보면 바위 위에 들쭉날쭉 펼쳐진 바위 위를 지나 대왕교를 건너 대왕암까지 갈 수 있다.

대왕암은 동쪽으로 뻗은 끝 지점에 있어 울주군 간절곶과 함께 국내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절경과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대왕암이 관광객들의 인기를 더 끌게 된 건 2021년 개장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덕분이다. 이 다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상 출렁다리로, 다리 위를 걷는 내내 대왕암 주변 비경을 짜릿하게 즐길 수 있다.

출렁다리 외에도 전설바위길, 비닷가길, 송림길, 사계절길 등 걷기 좋은 4개의 산책코스가 있으며,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도 인기다. ↗



이곳만은 꼭!

울산광역시 동구새마을회가 추천하는 울산 여행



강동화암주상절리

보통의 주상절리가 수직으로 솟은 것에 비해 강동화암주상절리는 수평으로 누워있다. 해가 뜰 때면 주상절리 위로 부서지는 하얀 파도가 신비로움을 더한다. 화암 주상절리에서 해변을 따라 내려오면 경쾌한 파도 소리가 일품인 강동몽돌해변이 펼쳐진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대왕암

대왕암은 울산 동구에 있는 해안 공원이다. 울주군 간절곶과 함께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다.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대왕암, 울기바위, 탕간바위, 용굴 등의 기묘한 자태를 뽐내는 기암괴석을 만날 수 있다.

📍 울산 동구 등대로 110



슬도

갯바람과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마다 거문고 소리가 난다 하여 지어진 슬도는 방어진항으로 들어오는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바위섬이다. 고래상과 등대 등 보는 재미와 파도 소리를 듣는 재미, 그리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해 낚시하는 재미까지 가득하다.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동 산5-3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책임지고 관광지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계절별로 다양한 매력을 선사한다. 그중 정원 내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나무 숲인 심리대 숲은 밤이면 조명이 더해져 마치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고래 포획이 금지되면서 쇠락하던 마을이 지난 2008년 고래문화마을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 고래 포획을 하던 시절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마을 모습, 고래 조각을 볼 수 있는 공원,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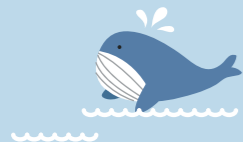
📍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울산대교 전망대

대다수의 국내 산업단지가 그렇듯 울산 역시 낮보다 밤이 화려한 도시다. 어둠이 깊어지면 꺼지지 않는 산업단지의 수많은 빛이 장관을 이룬다. 찬란한 야경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화정산 정상에 지어진 울산대교 전망대에 올라가 볼 것을 추천한다.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1



울산광역시 동구새마을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울산 동구새마을회는 우리나라 최고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앞에 사무실을 두고 김국주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김수득 협의회장, 안영숙 부녀회장, 오정연 문고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개동 520명의 새마을지도자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새마을회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활동 중 하나로 2016년부터 울산대교 전망대 진입 도로변에 철쭉 9,000그루를 집중적으로 심는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 시민에게 힐링 산책길로 사랑 받고 있으며,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또 다른 볼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많은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요즘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물질문명의 발달로 핵가족화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웃 간의 정과 인심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약 21년간 매년 추석 명절이면 울기공원 내 무연고 묘(150기)를 벌초하고 직접 마련한 제사 음식으로 합동 차례를 지냈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하시면서 느낀 보람은 무엇인가요?

매년 동구 새마을지도자들이 일 년 동안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고철 등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연말에 김장 김치를 담아 관내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장 김치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좋은 일을 한다면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모아 다시 가져다주시는 모습에 참다운 봉사의 보람과 이웃 간의 정, 환경의 선순환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 계획과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 제로 챌린지, 페트병 모으기, 2050탄소중립 실천다짐대회 등을 추진하여 개인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도 지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왼쪽부터) 김국주 동구새마을회장, 오정연 문고회장, 안영숙 부녀회장, 김수득 협의회장

‘함께’의 힘으로 ‘새마을운동정신’을 꽃피우다

강원도 평창 대관령면협의회 & 부녀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함께 가기 위해선 보폭을 맞춰야 하고, 기꺼이 서로를 도와야 한다. 그렇기에 혼자 가는 것보단 때론 더디고 수고스럽지만, 그 힘은 홀로일 때보다 더 세다. 협의회와 부녀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마을정신을 꽃피워 나가는 대관령면 새마을회가 보여주듯이 말이다.

글. 유푸름 사진. 김병구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평창군은 대농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매일 농약병, 포대, 모종판, 대형 물탱크 등 많은 양의 영농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게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이를 처리하려면 마스크와 장갑처럼 보호 장비도 장착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또 대형 물탱크는 얼마나 무거운지, 장정 두세 명이 힘을 합쳐야 겨우 들 수 있을 정도다. 이처럼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은 산책하며 쓰레기 줍듯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곳 평창에는 이 고된 일을 자청하는 이들이 있다. 이기영 협의회장을 필두로 한 대관령면협의회 회원 33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농약병 수거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용기 안에 남아있는 독극물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때로는 마스크를 써도 어지러움을 호소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기에 저희 대관령면협의회에서 틈틈이 농약병을 수거하고 있어요. 위험한 일인 만큼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50분 동안 수거하면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등 회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작업하고 있어요.”



강원도 평창 대관령면협의회와 부녀회



대관령면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마을을 위해 헌신 중이다. 마을 하천이나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부터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찬 만들기, 이동 목욕 봉사, 한 옷 수거, 김치와 장 담그기까지. 25명의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손길을 내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몇 년간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경로잔치도 다시 시작했다. 최철순 부녀회장 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부녀회 덕분이다.

“새마을부녀회의 조직력과 업무 능력을 따라올 조직이 없다고 자신해요.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도 저희 부녀회에서 도맡고 있어요. 회원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조직력으로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고, 묵묵히 봉사해 주신 덕에 저희 지역에서 새마을부녀회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새마을정신을 담은 회관

최근 대관령면협의회는 회원들이 부지런히 영농폐기물을 모아서 판매한 자금과 군에서 나온 보조금을 더해 번듯한 회관을 세웠다. 자재 구입부터 설치까지, 무엇 하나 회원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다.

“회관은 회원들의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초반에 묵수였던 김길용 지도자님께서 힘을 많이 보태 주셨죠. 아쉽게도 김길용 지도자님은 완성된 회관을 보지 못하셨어요. 공사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는데, 얼마 못되어 돌아가셨거든요. 처음 입원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오히려 당신 없이도 회관 공사를 잘 마무리 지으라고 다독이시던 목소리가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김길용 지도자의 격려는 회원들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친 덕에 공사는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인 만큼 대관령면협의회는 회관을 주민들에게 24시간 무상 개방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대변하는

1
대관령면협의회와 부녀회 회원들이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선별직접하고 있다.

2
영농폐기물을 판매한 자금은 새마을운동전개와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된다.

마을을 위한 봉사부터 회관 공사까지. 크고 작은 일에 함께 호흡을 맞춰온 덕분에 대관령면협의회와 부녀회는 남다른 결속력을 자랑한다.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 덕분에 대관령면새마을회관은 마을의 공유오피스처럼 사용되고 있다.

환상의 짝꿍

마을을 위한 봉사부터 회관 공사까지 크고 작은 일에 함께 호흡을 맞춰온 덕분일까? 대관령면협의회와 부녀회는 남다른 결속력을 자랑한다. 일례로, 올해 부녀회 숙원 사업이었던 조리실 신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 뒤에는 이기영 협의회장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부녀회는 홀몸 어르신에게 나눠줄 반찬을 직접 만들어 전하고 있는데, 그간 조리실이 따로 없어 복지관이나 회원들의 집을 전전했다. 이에 조리실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기영 협의회장은 평창군수에게 직접 편지를 써 상황을 알리고 자금 조달을 위해 힘을 보탰다.

내 일, 네 일 따지지 않고 서로 힘을 보태다 보니 어느새 두 조직은 환상의 짝꿍으로 거듭났다. 부녀회에서 봉사나 행사를 위한 후원금이 필요하면 협의회가 영농폐기물을 팔아 모은 운영자금을 아낌없이 후원한다. 협의회 회원들이 ‘부녀회가 없으면 협의회도 없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서로를 향한 감사와 칭찬으로 충만한 대관령면협의회와 부녀회를 보고 있자니 문득 이들의 모습이 새마을정신을 뚝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이 함께 바꾸어 나갈 대관령면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 ☺



새마을운동은 신뢰와 기다림입니다

「제1회 경기도새마을대상제」

대상 배재윤 경기 파주시 파주읍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모두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 모두가 그렇듯 누구에게 알려려고 봉사를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누군가 그 노고를 알아준다는 것은 큰 원동력이 되곤 한다.

처음으로 열린 경기도새마을대상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 활동실적이나 평판도, 인지도 등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부터 평소 지역 사회에서 덕망과 칭찬이 자자하여 추천 대상자로도 충분히 인정도 받아야 한다. 활동기간, 활동내용, 주변의 추천 등 전방위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다 보니 이상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기쁘긴 했지만 큰상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상에 경중을 두지 않았던 터라 대상이든 아니든 감사한 마음은 매한가지라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노인회장님, 주민자치회장님, 마을 부녀회장님 등을 비롯한 주민 분들이 마을에 소문을 내시고 화분을 보내주시며 축하해주시더라고요. 수상 이후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나니 그제야 실감이 나고 그 마음에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그가 새마을지도자로 선임된 것은 지난 2007년 1월의 일이다. 당시 20여 년을 제조업에 몸담고 있었는데, 공장에 화재가 나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지쳐있었다. 재건하기 보단

새마을대상제는 매년 실시되는 정부포상 추천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동 이하 우수 새마을지도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매일같이 살을 부대끼는 읍면동새마을회는 물론 시군새마을회, 도새마을회에서 인정받아 제1회 경기도새마을대상제에서 명예의 대상을 받은 배재윤 새마을지도자를 만나봤다.

글. 왕보영 사진. 전경민

이참에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빠 돌아가던 일상을 멈추고 쉬다 보니 마을이 보였다. 마을 봉사를 하며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과 자주 만나게 됐는데, 어느 날 그를 새마을지도자로 추천했다.

“처음엔 한사코 거절했어요. 새마을운동은 알았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생소했거든요. 마을이 좁다 보니 여러 봉사단체가 얽히고설켜 있어요. 저도 여러 단체에서 봉사를 이어왔는데, 그 중 새마을운동이 활동이 가장 많고 또 회원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서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마을지도자로 선임된 2007년 1월부터 그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새마을정신을 실천해왔다. 그러니 그가 경기도새마을대상제에서 받은 대상은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 봉사에 대한 심심한 위로이자 모두의 응원인 셈이다.

참여율이 돋보이는 파주읍새마을협의회

파주읍은 도시보단 농촌에 가까워서 읍에만 국한하자면 다른 자치회나 이장협의회 보다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편이다. 예로 읍에서 민원이나 행사 등 협의할 것이 있으면 새마을협의회와 우선 협의할 정도로 모범 단체임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연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다. 어느 행사이든 바쁜 시간을



또개어 26명의 지도자 중 20명 이상이 항상 참여할 정도이다. 서로에게, 나아가 마을에 큰 힘이 되는 이유다.

“행사가 있을 때면 단체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직접 만나 뵙거나 전화를 하는 편입니다. 저조차도 바쁘는데 단체 알림방에 알람이 여러 번 울리면 굉장히 귀찮고 그게 반복되면 관심을 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분 한분에게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요. 그렇게 하면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더라도 스스로 행사에 참여할 이유와 역할을 찾으시더라고요.”

개개인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마음과 시간을 써야하는 일이지만, 그 마음과 시간은 몇 배로 돌아오기에 배재운 새마을지도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새마을지도자에게 공을 들여 연락한다. 높은 참여율을 자랑하다 보니 파주읍협의회는 늘 바쁘다.

“이번 주에는 감자를 캘 예정이에요. 저희가 가꾸는 밭이 있는데, ‘사랑 나눔 감자 캐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확한 감자 200여 박스를 파주읍 복지팀을 통해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 외에 파출소나 경로당 등에도 나누고요. 또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도 진행 중이고, 말라리아 방역활동, 김치 나눔 행사도 하고요. 특히 개성인삼축제나 장단콩 축제 같은 큰 행사가 열리면 부녀회와 함께 부스를 마련해서 파주의 명물을 홍보하고 특산물 판매도 돕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봉사 활동이지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외에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힐 때면 늘 아쉬움이 크다는 배재운 새마을지도자다.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하다 보면 가진 예산으로는 늘 부족하다.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 쓰여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보지만, 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꾸준히 생활할 수 있게 관리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못내 속상한 마음이 더 크게 밀려온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사비를 건어 1명의 학생에게 1년 동안 장학금 후원도 하고

새마을운동 하면 공식처럼 ‘근면’, ‘자조’, ‘협동’을 떠올리지만 배재운 지도자는 여기에 ‘신뢰’와 ‘기다림’을 더한다.

있다. 한해의 후원이 끝날 때면 직접 준비한 선물을 한보따리 전하며 인사도 나눈다. 물질도 물질이지만, 그들의 전하는 마음은 값으로도 매길 수 없다.

신뢰와 기다림이 필요한 일

새마을운동 하면 공식처럼 ‘근면’, ‘자조’, ‘협동’을 떠올리지만 배재운 지도자는 여기에 ‘신뢰’와 ‘기다림’을 더한다.

파주시는 말라리아 경보지역이라 방역활동이 꽤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과거엔 수기로 방역일지를 작성했는데 요즘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한 후 방역차로 이동하면 시작과 동시에 모든



활동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이에게는 열 번을 교육받아도 매번 새로 듣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새마을지도자들은 각각의 역량이 달라요. 어떤 지도자는 IT 기기에 익숙한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지도자는 현장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게 뭐든 척척 해내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가 더 넘치거나 모자랄 것 없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한분 한분을 믿고, 습득할 수 있게 반복하며 알려드리고, 또 그것을 해낼 수 있게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 간의 믿음,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응원, 그 모든 것을 기다려주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충족될 때 배재운 새마을지도자의 말처럼 새마을운동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파주읍의 행복을 위해 더 힘쓰는 한 해가 될 것

그는 1년 365일 새마을운동을 삶에서 떼어내 본 적이 없다. 가족들의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그 누구보다 가정적인 덕분에 가족들 역시 그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늘 지지하고 있다.

“제 입으로 이야기 하긴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가족 위주로 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제 마인드가 ‘내 가족에게 잘해야 남한테 잘 한다’이거든요. 가족들과 부족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면서 새마을운동 활동을 이어가다 보니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더라고요. 아, 가끔 ‘새마을하고 살아~’라는 농담을 건네긴 하지만요. 하하.”

파주읍새마을협의회는 전국 어디다 내놓아도 흠잡을 곳 없이 많은 지도자가 있고 참여율이 돋보이지만, 그는 오늘이 아닌 내일의 마을을 내다본다.

“저를 비롯해서 파주읍협의회에서 올해 목표로 삼은 것이 있어요. 파주읍은 7개 법정리로 되어있고, 그 안에 32개 마을이 있어요. 그 중 26개 마을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나머지 6개 마을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협의회장이나 마을 이장님 등에게 만남을 부탁하기도 하고 새마을지도자 추천을 요청 드리기도 했으나 좀처럼 쉽지 않았어요. 올해는 꼭 지도자가 결원된 마을에 새마을지도자를 세워 마을의 활성화는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 새마을운동에서 펼쳐는 여러 활동의 혜택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꼭 필요한 혜택을 제 때에 받을 수 있게, 나아가 파주읍의 행복을 위해 1년 365일 고민하는 배재운 지도자가 있어 파주읍의 희망찬 내일이 더 기대된다. ☘

1 매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나눔 감자 캐기 사업

2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이웃의 집을 고쳐주는 사랑의 집수리 활동

3 겨우내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전하는 김치 나눔 사업

4 제회 경기도새마을대상제 대상을 받은 배재운 새마을 지도자

청년들이 만들어 갈 새로운 미래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출범

지속적인 교류와 참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힘이 된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이 졸업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조직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가 출범했다. 청년들의 재능과 지속적인 활동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 갈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글. 편집실 사진. 홍보팀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중 400여 명이 졸업을 앞두고 기존 청년 조직인 Y-SMU포럼의 저조한 활동이 지속적인 회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청년들이 활동할 조직의 재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느꼈다.

차세대 새마을지도자가 될 청년 육성

그간 새마을운동에 청년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초기 202개 조직, 11,252명의 회원이 참여했던 Y-SUM포럼은 최근 51개 조직, 1,132명의 회원으로 참여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기존의 청년조직인 Y-SUM포럼 회원과 대학새마을동아리 졸업생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조직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의 직·간접적인 새마을운동 참여를 통한 차세대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고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등으로 청년세대를 유입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활발한 새마을운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젊은 에너지와 그간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 나아가 지구촌 공동번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이 활동할 조직, 재정비 필요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나 요즘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십 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새마을지도자의 노하우와 행동력은 그 어느 조직보다 뛰어나지만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청년 인재의 부족은 오랜 숙제였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5월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발대식을 통해 대학생들이 활동할 조직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60개 대학새마을동아리, 총 2,40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새마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별 특색에 맞춘 활동을 포함해 농촌일손 돕기, 소외계층 돌봄, 탄소중립 실천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MZ세대가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전국의 새마을운동은 한층 젊어졌다. '마을정화활동'이 '줍깅 데이'로 이름을 달리한 것처럼 보다 젊은 느낌이 감미되어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분 좋은 변화 속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2,400여 명의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창립총회 열려

청년새마을연대는 청년세대의 활발한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위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서로를 연결하여 근면·자조·협동의 기본 정신으로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다. 전국 6개 시·도 및 213개 시·군·구에서 '청년새마을연대' 조직이 구성되어 16개 시도에서 시·도청년새마을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새마을운동중앙회 4강의실에서 청년새마을연대가 한데 모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별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과 대의원 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청년새마을연대를 이끌어 나갈 대표를 선출하고 원활한 조직 운영 및 단합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다짐했다.

대의원 투표로 진행된 임원선거에서는 배진호 대전 서구 우락부락청년새마을연대 회장이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부회장은 김현우, 김종명 대의원이 선출됐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이날 특강에서 "공동체 붕괴, 이념이나 세대 갈등처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새마을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분임토의에서는 청년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논의가 이어져 활기 넘치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튿날에는 새마을역사관 견학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다시금 일깨웠으며,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청년새마을연대는 청년세대의 활발한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증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하는 모임이다.

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퍼포먼스에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들은 미리 준비해 온 꿈꾸는 미래의 대한민국과 새마을운동에 대해 손수 적은 글과 그림을 타임캡슐에 담고 앞으로의 청년새마을연대로서의 다짐과 바람을 담아 하늘 높이 연을 띄웠다.

오는 9월에는 전국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청년새마을운동을 위한 기념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각 지역 청년새마을연대의 구심점이 될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는 앞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단체와 상호교류·협력·연대를 이어 나가며, 향후 공동체회복 운동,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탄소중립 운동, 해외봉사 등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의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고 생각을 나누는 끈끈한 청년조직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이들이 만들어낼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

1 전국청년새마을연대를 이끌어 나갈 대표 선출 투표
2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창립총회 현장
3 (왼쪽부터) 김종명 부회장, 배진호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초대 회장, 김현우 부회장



세계로 뻗어나가는 '잘 살아보세!'의 외침

동티모르 & 우간다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주로 환경 개선 사업, 소득 증대 사업, 의식 교육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해당 국가에 농업만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너지·수도과 같은 중요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같은 새마을운동 전수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글. 장희주

우간다에 희망이 되어준 새마을운동

2009년부터 시작된 우간다의 새마을운동은 지금까지 시범마을이 15개가 생겨났을 정도로 새마을운동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선도적인 새마을운동 국가인 만큼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간다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새마을지도자 양성기관인 '농업지도자연수원'을 개원한 나라다. 연수원은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캄피링기사 마을에 세워졌으며, '새마을운동의 허브'가 되어주고 있다. 이곳은 우간다의 농업 발전을 위해 리더십을 배양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우간다 정부는 주력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확산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곳 연수원에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고 농업기술도 전수하는 행보를 선보였다.

새마을운동이 우간다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데는 현지 지도자의 역할이 컸다. 그 중심에는 새마을교육을 받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새마을 조직이 있었다. 가장 좋은 사례로는 우간다 수도에서 317km 떨어진 카바로레군 카바로레면 키보하마을이다. 그들은 2010년 스티븐 바로지 새마을회장에게 새마을

교육을 받고 자발적으로 새마을 조직을 구성했다. 조직 당시 주민의 43%가 새마을회원이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자발적 기부를 비롯해 다양한 수익 사업을 추진해나감으로써 마을 기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벌였다. 마을 안길 넓히기, 수질 정화, 식수 공급, 가정 내 위생 시설 개선 등이 바로 그것. 또한 재정적 기반이 바로 서야 새마을운동을 지속할 수 있음을 깨닫고 '마을은행'을 건립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텐트·의자 임대사업, 식품 가공사업, 염소은행 등 공동 소득증대 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교육도 빠질 수 없다. 우간다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새마을운동이 현지 사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가난 극복'에 있다. 새마을운동은 '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운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간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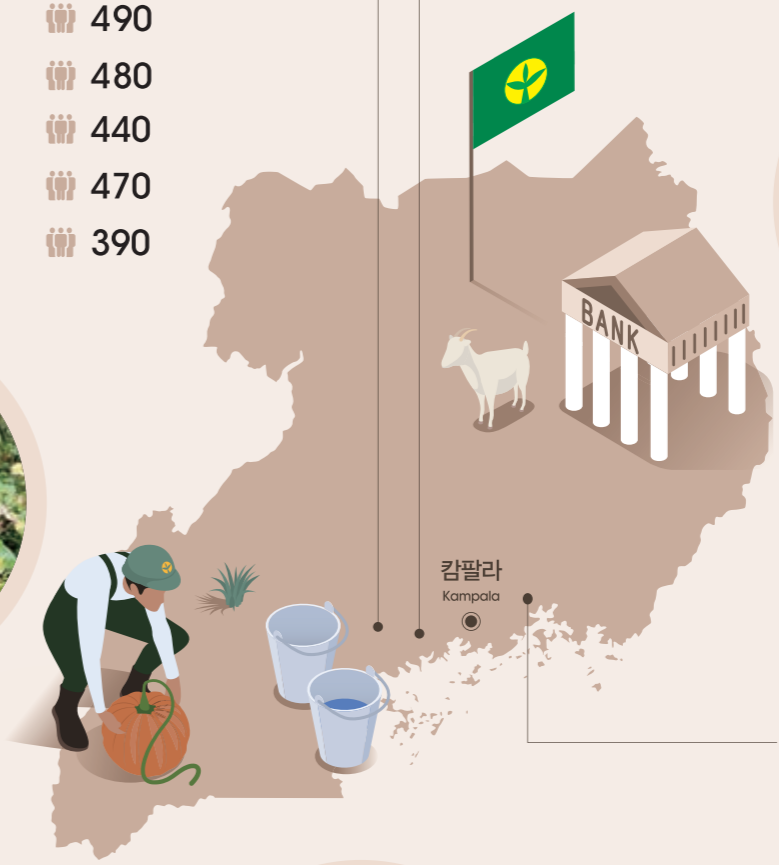
🕒 수도에서 거리 🏠 인구

2005~2019년도
🕒 150분

나발레	🏠 450
마왕가	🏠 490
반다	🏠 480
부왈라	🏠 440
은디라위루	🏠 470
차봄보	🏠 390

2009~2014년도
🕒 60분

카테레케	🏠 1,500
키테무	🏠 2,500



2021~2025년도
🕒 150분

칼라갈라	🏠 651
캉구루미라	🏠 650
카삼비아	🏠 550
키왈라시	🏠 510
키우구	🏠 578
시타	🏠 685
수나	🏠 556

동티모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현황

🕒 수도에서 거리 🏠 인구



2016~2020년도 (1차)

🕒 360분

루아라이	🏠 736
바우로	🏠 752
차울루루르	🏠 713
차이바차	🏠 559

2021~2025년도 (2차)

🕒 60분

벨로이	🏠 780
비켈리	🏠 1,106
레퀴투라	🏠 1,008
셀로이 카라익	🏠 530

마을의 공동 목적이 된, 동티모르의 새마을운동

동티모르의 새마을운동은 그 어떤 나라보다 더욱 특별하게 진행됐다. 2002년 유엔평화유지군(PKF)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된 국군 상륙수부대가 새마을운동을 전파했기 때문이다. 상륙수부대는 새마을운동을 '호메마을 프로젝트'라 명명했고,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호메마을초등학교 배수로 건설을 시작으로 공동 우물 및 양계장을 조성했다. 특히 초등학교에 건설된 양계장에서는 주민과 학생이 지도교사 아래 양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병대 중장비를 투입해 개간작업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작지 2.5ha를 일구기도 했다. 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대표를 한국의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교육을 보내는 등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동티모르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1차, 2차로 나눠 운영했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마을은 대체적으로 주민이 살아가기에 열악한 마을 환경을 안고 있었기에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이 추진됐다. 수도공급, 마을안길 보수, 화장실 개선 등 열악한 생활환경을 적극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었으며, 마을회관도 구축해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도 형성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생 교육도 새마을운동의 일환이었다. 주민위생 교육을 통해 개인의 위생 의식을 높이고 질병 감염과 확산을 예방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핵심원리와 가치는 동티모르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인 'PNDS'에 접목되기도 했다. 이는 동티모르 전국 단위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새마을운동 현지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 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자산이다. 새마을운동이 지구촌새마을운동으로 거듭나고 여러 국가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지금은 비건 시대

흔히 '채식주의'로 알려진 비거니즘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용품·화장품까지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하고 동물 착취와 학대를 반대하며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축산물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가치는 나와 너를 포괄하여, '지속 가능한 우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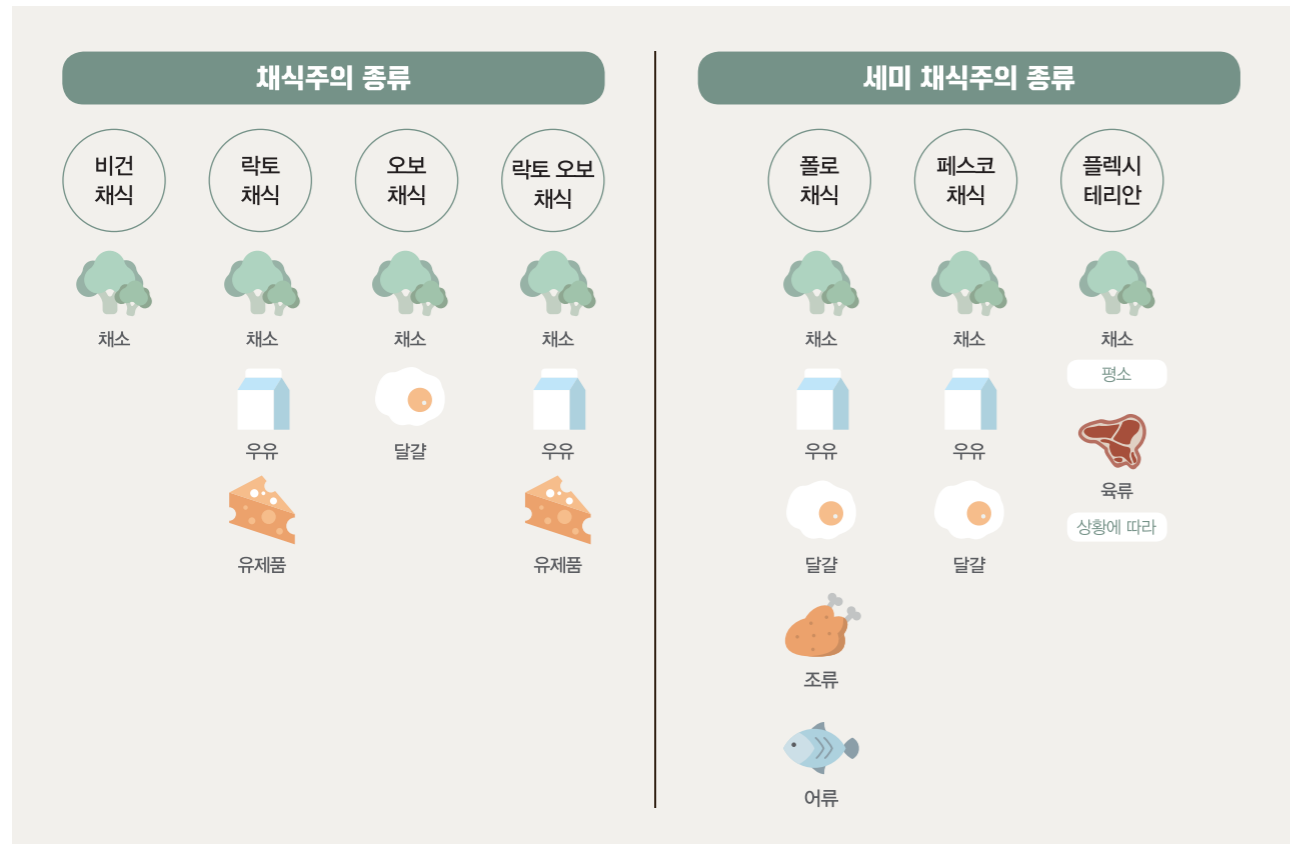
비건≠채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건은 곧 채식주의자를 의미했다. 고기와 같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고, 동물 착취로 만들어진 제품을 반대하는 가치관이었다. 그러나 최근, 비건이라는 의미가 확장되어 삶의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기인한다. 유례없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 가치관과 신념을 구매하려는 소비 성향의 변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비건 라이프는 건강을 넘어 환경, 지구를 위해 가치 있는 소비를 하려는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비거니즘은 개인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계관도 변화시키고 있다. 동물, 환경, 자연을 생각하는 브랜드가 늘고 있다. 포장재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변경하거나 제품 자체를 '비건 라인'으로 출시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를 위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잔인한 동물 실험을 자행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요즘은 비거니즘 라이프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게 됐다.



VEGAN



육식에 편중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수하는 불편함이, 곧 지속 가능한 지구를 가능케 하는 해법이 아닐까.

부터 얻는 우유와 달걀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은 동물복지, HACCP, 무항생제 인증 등을 획득해 윤리적 소비를 가능케 한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에도 동참해 보자. 말 그대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아예 배출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자는 의미가 더 크다. 장을 보러 갈 때는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챙긴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 대신 생분해성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다.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다면 리필할 수 있는 제품은 리필해 사용한다. 예로 샴푸, 바디워시,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이다. 또 제로웨이스트 운동 중 하나로 '거절하기'가 있다. 카페에서 빨대 거절하기, 배달 앱에서 일회용품 거절하기, 불필요한 포장 거절하기 등이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감수하는 불편함이 곧 지속 가능한 지구를 가능케 하는 해법이 아닐까.

육식에 편중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비거니즘. 변화하는 가치가 우리의 삶과 지구를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브랜드도 동참하는 비거니즘

동물 가죽을 사용하던 다양한 패션 브랜드가 '비건 가죽'을 선호하고 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든 인조가죽을 넘어 버섯 곰팡이·파인애플 잎 등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비건 가죽으로 만들며 소재가 진화하고 있다. 프랑스 브랜드 에르메스는 버섯 가죽으로 만든 '빅토리아 백'을 출시했다. 이를 위해 에르메스는 미국의 대체가죽 기업인 마이코웍스(MycoWorks)와 3년 여에 걸쳐 버섯 가죽 '실바니아(Sylvania)'를 개발했다. 버섯 뿌리에서 채취한 균사체를 활용했고 가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는 목재 펄프 신소재 '데메트라(Demetra)'를 선보였다. 주 소재는 밀, 옥수수 등으로 여기에서 바이오 기반 폴리우레탄을 검출하여 사용한다.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농업 여신 '데메테르(Demeter)'에서 따왔다. 데메트라를 개발한 후 구찌는 비건 운동화 3종을 출시했다. 화장품 업계의 발걸음도 비거니즘과 나란히 하고 있다. 그 중심에 러쉬가 있다. 러쉬 비전 자체가 '동물과 자연,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들은 환경 보호, 동물실험

반대, 과대 포장 반대 등 자체 윤리 정책을 실현하며 비건 뷰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굴지의 대규모 뷰티 기업도 동참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비건 인증을 받은 메이크업 브랜드 '톤위크'를, LG생활건강은 '프레시안'을 론칭했다. 브랜드가 비거니즘에 동참하려는 이유는 환경을 비롯해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건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다양한 비건 제품이 쏟아지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비록 육식을 포기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평소에 섭취하는 육류량을 점검해, 조금씩 줄여나가면 된다. 육류가 주메뉴인 불고기 대신 육류가 적게 들어간 된장찌개를 먹는 식이다. 특정 날짜를 지정해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도 좋다.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보자. 케이지 없이 쾌적한 사육 환경에서 자라 스트레스가 적은 닭소와 닭으로



중앙회 소식



1. 중앙회원단체 워크숍 및 농촌일손돕기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회장 김종복)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회장 조승희)는 지난 6월 16일~20일까지 충북 단양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양 마을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한편,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회장 조승희)는 지난 6월 27일~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전문수)는 지난 5월 19일~20일 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문고중앙회(회장 박경수)는 지난 5월 25일~26일 충남 보령시 환상의 바다 리조트에서 회원단체별 워크숍을 개최했다.



2. 2023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5.26.~5.27.)

중앙회는 지난 5월 26일 지방시대 정책 공유를 위해 한국지역개발학회(회장 김현호)가 주최하는 '2023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지방시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회관계자, 교수,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개발 및 불균형의 현안과 이슈에 담론을 형성하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전문가 세션(새마을운동)은 '세계화 및 ESG도입을 위한 새마을운동 전략방안'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장준철 중앙회 국제협력국 팀장이 '새마을운동의 ESG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관한 발표를 하고 토론자로 이동현 중앙회 국제국 대리, 서상덕 대구시새마을회 행정지원부장이 참석했다.



3. 2023 부룬디·마다가스카르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6.12.~6.21.)

중앙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지속가능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부룬디·마다가스카르 공무원과 마을지도자 2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마을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마을운동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마을 사업 모범 사례를 공유해 부룬디와 마다가스카르 새마을운동의 현지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6곳의 시범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부룬디의 중앙부처 공무원 7명과 시범마을 지도자 12명, 마다가스카르의 농업축산부 공무원 5명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4. 2023 대학새마을동아리 새마을교육(6.26.~6.28.)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41개 지회 대학새마을동아리 임원 및 회원 130명을 대상으로 통산 제2535기 '대학새마을동아리과정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이해와 함께 새마을동아리 소개 및 사업안내, 우수동아리 사례 발표 및 현장 견학 프로그램으로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신한대학교새마을동아리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학생들이 친환경 비누를 만드는 모습이다.

시·도 소식

서울 | 농촌일손돕기 및 업무협약

서울특별시새마을부녀회(회장 조동희)는 지난 6월 16일 북단양농협과 농촌일손돕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양군수를 면담했다. 부녀회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해미읍성에서 개최된 '제4회 서산 육쪽마늘축제'를 홍보하고 서산 농특산물을 적극 구매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부산 | 마을공동체 자치 사업 토론회

부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재종모)는 지난 6월 15일 반송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주민주도형 공동체운동의 사업 취지를 공감하고 구군 마을별 상황에 맞는 자치 사업을 고민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 | 휴공 던지기 및 줄깡활동

대구광역시협의회(회장 김기출)와 부녀회(회장 채경애)는 지난 6월 13일 신천(동구 지저동 둔치, 북구 산격동 야영장 입구)에서 탄소중립 실천 및 하천 환경 정화를 위해 회원들이 직접 만들고 발효시킨 EM(유용미생물군) 휴공 던지기 및 줄깡활동을 했다.



인천 | '필' 환경시대의 시작 '승기천 살리기'

인천광역시협의회(회장 한광인)는 지난 6월 20일 승기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EM(유용미생물군) 휴공 1,600여 개와 미꾸라지 10,000여 마리를 방류하는 "'필'환경시대의 시작 승기천 살리기" 사업을 펼치고 하천변에서 약 300kg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광주 | 자원봉사자 워크숍

광주광역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는 지난 5월 9~10일까지 쓸비치 진도에서 관내 새마을 핵심지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각종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포터즈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 | 농촌사랑 마늘농가돕기 활동

대전광역시협의회(회장 박우)와 부녀회(회장 남희수)는 지난 6월 19일 충북 단양군 적성면 마을 농가를 방문해 수확을 돕는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시·도 소식

울산 | 마을공동체운동 추진 리더 워크숍

울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정대식)는 지난 6월 29일~30일 컨싱턴리조트 경주에서 56개 읍면동 회장단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마을공동체운동 추진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다.



세종 |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회장 김영제)는 지난 6월 20일~21일 무창포 비체팰리스에서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경기 | 우리 집 탄소제로 체험 교실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송재필)는 지난 5월 27일~28일 고양 킨텍스 야외전시장에서 느끼고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집 탄소제로 체험 교실'을 열고, 플리마켓과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다.



강원 | 강원도 유관 단체 민관협력 간담회

강원도새마을회(회장 박형배)는 지난 6월 1일 알펜시아리조트 오디토리움에서 18개 시군새마을회장과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및 강원청년새마을연합회 출범식'을 가졌다.



충북 | 핵심 지도자 워크숍 개최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이화련)는 지난 6월 13일~14일간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주제로 '2023년 충청북도새마을회 핵심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남 | 제30회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회장 임순복)는 지난 7월 12일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을 위한 '제30회 충남새마을여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새마을여인상 대상과 본상 14명, 모범부녀회장 표창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새마을여인상은 새마을부녀지도자들이 일선에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꾸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실천한 사례를 발굴, 시상하며, 올해로 제30회째를 맞이했다.



전북 | 2023년 길 위의 인문학 기행

새마을문고 전라북도지부(회장 나순희)는 지난 6월 14일 문고회원 및 지역주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역사·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정읍'이라는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다.



전남 | 산불 피해지역 복구 봉사활동 참여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이귀남)는 지난 6월 6일 전남 청년새마을연대 연합(회장 김영명)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청년새마을연대 연합 회원 30여 명과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인 순천시 송광면 일원에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도배, 장판, LED 전등 교체 및 이·미용 활동을 실시했다.



경북 | 행복경북 마을공동체 현판식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협의회(회장 조성현)는 지난 7월 5일과 10일 행복경북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시범마을 현판점검 및 마을공동체 현판식을 가졌다. 행복경북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 운동으로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협의회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포항, 김천, 문경, 고령 등 4개 시군마을에서 진행된다.



경남 |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 교실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안화영)에서는 살기 좋은 우리 경남을 만들기 위한 안전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새마을교통봉사대 경상남도지역대 주관으로 실시했다.



제주도 | 조직역량 강화 한마음대회

제주특별자치도부녀회(회장 김정임)는 지난 6월 8일 한라체육관에서 '2023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유공자 표창, 명랑운동회, 재활용품 작품 전시회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이북5도 | 새마을운동함경북도지회 정기총회

새마을운동함경북도지회(회장 강승훈)는 지난 5월 31일 이북5도청 회의실에서 2022년도 사업추진실적,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안에 대한 의결 등을 안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장은 지금

공동체 문화 조성

- 서울 종로구부녀회(회장 심재너)는 지난 6월 13일 회관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장애인 및 틈새계층 20세대에 전달했다.
- 문고 서울 중구지부(회장 조덕순)는 지난 6월 10일 충북 보은군 오장환문학관으로 길 위의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다.
- 문고 서울 광진구지부(회장 권중형)는 지난 6월 7일부터 3일간 군자사거리 앞에서 알뜰 도서 무료 교환시장을 개최했다.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협의회(회장 나용환)와 부녀회(회장 임향순)는 지난 6월 10일 깨끗한 천연동 만들기를 위한 줍기 사업을 전개했다.
- 서울 영등포구 양평2동부녀회(회장 황맹덕)는 지난 6월 16일 관내 홀몸 어르신 30여 명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 서울 강남구부녀회(회장 박수경)는 지난 6월 8일 관내 소외계층 120세대를 대상으로 '새마을 이웃사랑 김치나눔' 사업을 펼쳤다.
- 서울 강동구협의회(회장 장대성)는 지난 6월 10일 관내 일자산 일원에서 새마을기 교체작업을 실시했다.
- 인천 연수구새마을회(회장 김경식)는 지난 6월 19일 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희망자람 계절 김치 나누기' 사업을 펼치고 관내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했다.



- 인천 계양구새마을회(회장 오명석)는 지난 5월 2일 관내 저소득 가구와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 520세대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갈비탕 나눔' 사업을 펼쳤다.

- 인천 서구 석남1동협의회(회장 고영삼)와 부녀회(회장 탁순금)는 지난 6월 9일 노인복지관에서 홀몸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급·배식 활동을 펼쳤다.
- 인천 강화군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지난 6월 15일 도래미 마을에서 관내 취약계층 80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사업을 전개했다.



- 강원 홍천군새마을회(회장 이강권)는 지난 6월 13일 결원 어르신 40명과 함께 무궁화수목원 및 생활체육공원에서 '2023 새마을돌봄 희망노을' 사업을 펼치고 식사를 대접했다.
- 강원 영월군부녀회(회장 원애자)는 지난 6월 23일 군청을 방문해 영월장학회에 200만 원을 기탁했다.
- 강원 평창군 진부면부녀회(회장 박숙희)는 지난 6월 19일 거문리경로당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수 밥상' 사업을 펼쳤다.
- 강원 인제군 북면부녀회(회장 정옥수)는 지난 6월 20일 북면체육관 식당에서 관내 거주 홀몸 어르신 75세대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 강원 철원군부녀회(회장 이애숙)는 지난 6월 26일 새마을회관에서 배추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 어르신 121세대에 전달했다.



- 강원 고성군 거진읍부녀회(회장 박정순)는 지난 6월 22일 관내 거주 홀몸 어르신 100세대에 여름김치를 담가 전달했다.
- 강원 양양군새마을회(회장 김봉순)는 지난 6월 15일 회관에서

서울 · 인천 · 강원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훈련교육을 실시했다.

탄소중립 실천

- 서울 성동구지회(회장 유영석)는 지난 6월 19일 살곶이 체육공원에서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사업을 실시했다.
- 서울 성북구부녀회(회장 조영남)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간 각 지역 주민센터 인근 도로 '화단 가꾸기' 사업을 펼쳤다.
- 서울 노원구새마을회(회장 김오규)는 지난 6월 5일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서 창동교 나눔 광장까지 '탄소중립 생활 속 실천 함께해요!'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 서울 은평구협의회(회장 김창운)는 지난 5월 24일 응암역 광장 일원에서 '사랑하는 지구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함께 '식물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꽃모종을 배부했다.
-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서덕창)는 지난 6월 14일 탄소중립 및 관내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EM(유용미생물군) 흙공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



-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협의회(회장 김태호)는 지난 6월 24일 관내 짜투리 공간에서 '마을 화단 가꾸기' 사업을 펼쳤다. 당산1동협의회(회장 유재영)와 부녀회(회장 박미선)는 지난 6월 17일 관내 골목길 쌈지화단을 만드는 '청정 골목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
- 서울 강동구협의회(회장 장대성)는 지난 6월 18일 관내 우수관로를 중심으로 장마철 대비 주변 환경정화를 전개했다.
- 직장·공장 인천협의회(회장 김영곤)는 지난 6월 10일 십리포해수욕장에서 폐플라스틱, 일회용품, 비닐 등 각종 쓰레기 수거와 함께 관내 국가유공자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점검 및 수리도 실시했다.
- 인천 미추홀구 도화2·3동부녀회(회장 정영숙)는 지난 6월 7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클린업데이' 활동을 실시했다. 관교동

부녀회(회장 이영우)도 같은 날 관내 대로변 및 산책로에서 탄소중립 실천 줍기활동을 실시했다.

- 인천 남동구 구월1동부녀회(회장 오현숙)는 지난 6월 13일 관내 호구포로 및 매소홀로 일원 도로변에서 제초작업을 펼쳤다.
- 인천 서구 청라1동부녀회(회장 심설희)는 지난 6월 14일 관내 대로변을 중심으로 가로수 화단 잡초 제거 및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강원 속초시 영랑동협의회(회장 이우)는 지난 6월 18일 관내 17개소 아이스팩 수거함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활동을 펼쳤다. 노학동부녀회(회장 전금자)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관내 어린이집 원아 50여 명과 함께 재활용 화분 만들기를 했다.
- 강원 삼척시부녀회(회장 김정숙)는 지난 6월 14일 지회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생비누 550개를 만들었다.
- 강원 평창군새마을회(회장 김순열)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 '평창의 탄소중립 나침반을 제시하라'라는 주제로 2023 평창군 탄소중립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용평면협의회(회장 최기철)와 부녀회(회장 정해옥)는 지난 6월 25일 관내 5일장에서 재활용 나눔장터 활동을 했다.



- 강원 철원군새마을회(회장 정연권)는 지난 6월 7일 새마을소공원에서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문고(회장 장춘집)는 지난 6월 19일 서면체육공원 일대에서 제초작업을 전개했다.
- 강원 양양군새마을회(회장 김봉순)는 지난 6월 15일 회관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개인용 머그잔 만들기' 사업을 펼쳤다.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공동체 문화 조성

- 부산 사하구 괴정3동부녀회(회장 김정희)는 지난 6월 12일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데이 미역국 맛있데이' 사업을 추진해 관내 홀몸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했다.
- 부산 금정구부녀회(회장 김선희)는 지난 6월 14일 관내 결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이불 나눔' 사업을 펼쳐 16개동 총 112세대에 전달했다.
- 부산 강서구부녀회(회장 정경자)는 지난 6월 13일 구청 야외광장에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고추장을 담가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관내 복지사각지대 240세대에 전달했다.
- 문고 부산 연제구지부(회장 김형도)는 지난 6월 3일 관내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6학년 학생 180여 명이 참가한 '제14회 연제어린이 독서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 부산 수영구협의회(회장 임병석)는 관내 취약계층 17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장판, 싱크대, 새시 등을 교체하고 화장실을 수리하는 '뚝딱이 봉사단' 활동을 펼쳤다.
- 부산 사상구 덕포2동부녀회(회장 박삼덕)는 지난 6월 8일 중증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관내 저소득층 25세대를 위해 손두부 25모를 전달했다. 주례1동부녀회(회장 유정미)는 지난 6월 14일 관내 일원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15세대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 직장 · 공장 대구 북구협의회(회장 김용주)는 지난 6월 13일 관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찾아 도넛과 음료수 등 간식을 지원했다.
- 대구 수성구 지산2동부녀회(회장 김준희)는 지난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목련마을 공동체센터에서 열무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40세대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 대구 달서구 용산2동부녀회(회장 엄해란)는 지난 6월 21일 아이꿈센터 내에 위치한 아이꿈장난감도서관에서 이용객들이 반납한 장난감을 소독 · 살균하고 재포장하는 정리 작업을 실시했다.



- 울산 북구 농소2동부녀회(회장 김영숙)는 지난 6월 21일 관내 나눔 냉장고에 60만 원 상당의 밑반찬을 기부했다.
- 울산 울주군새마을회(회장 송병열)는 지난 6월 12일 남창 용기중기 시장 일원에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사업을 펼치고, 관내 홀몸 어르신 등 200세대에 전달했다.
- 경기 이천시 모가면협의회(회장 송성춘)와 부녀회(회장 이현옥)는 지난 6월 20일 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관내 유희지에서 경작한 감자 50상자를 수확했다.
- 경기 오산시협의회(회장 김태식)는 지난 6월 15일 신장동에 위치한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싱크대, 새시, 도어 등을 교체 · 수리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했다.
- 경기 하남시 위례동협의회(회장 김상철)와 부녀회(회장 이순기)는 지난 6월 23일 '사랑의 감자 나눔' 활동으로 20상자를 수확해 관내 취약계층 20세대에 전달했다.
- 경기 구리시 교문2동협의회(회장 배상은)와 수택3동협의회(회장 김용겸)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에 대비해 지난 6월 14일 각각 관내 일대를 방역 소독했다. 동구동부녀회(회장 김경순)는 지난 6월 1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의 이불을 수거해 세탁하는 '사랑의 빨래방' 사업을 펼쳤다.
- 경기 과천시 지난 6월 16일 부녀회(회장 김지숙)는 불고기, 열무김치 등 밑반찬 160통을 마련해 관내 어려운 이웃 80세대에 전달했다.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 경기 포천시 영중면부녀회(회장 조선희)는 지난 6월 27일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등 100여 세대에 오이지를 담가 전달했다.
- 문고 경기 의왕시지부(회장 박찬분)는 지난 5월 31일 가족공원에서 도서교환전을 개최하고, 체험부스와 바자회도 같이 운영했다.
- 경기 가평군부녀회(회장 고평희)는 지난 6월 9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관내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녹색장터 알뜰바자회를 열고 기탁 받은 옷을 판매해 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했다.
- 제주 서귀포시새마을회(회장 변봉남)는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라오스 나싸이팅 나썸마을을 찾아 길이 400m의 도로를 포장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탄소중립 실천

- 부산 해운대구 반여4동협의회(회장 전병규)는 지난 6월 10일 행정복지센터 주변 화단의 잡초제거와 나뭇가지 전정 작업을 실시하고, 사철나무, 영산홍, 단풍나무 등을 심었다.
- 부산 강서구 가덕동부녀회(회장 오정심)는 지난 6월 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해기지 사령부 육상경비대대 브라보중대 장병 20여 명과 함께 관내 국가관리묘역 일원에서 환경정비활동을 펼쳤다.



- 대구 북구부녀회(회장 양미경)는 지난 6월 14일 탄소중립 실천으로 대구공공시설 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를 찾아 쓰레기 매립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 대구 수성구 범물1동협의회(회장 김지석)와 부녀회(회장 문태필)는 지난 6월 15일 관내 도로변 가로화단에 여름꽃 800개를 심었다.
- 대구 달서구 송현2동협의회(회장 손해달)와 부녀회(회장 박연옥)는 지난 6월 7일 관내 도로변에 놓인 가로화단에 여름꽃을 심고, 주변 청소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 울산 동구 전하1동협의회(회장 김명진)와 부녀회(회장 박길순)는 지난 6월 20일 관내 일원에서 버려진 알루미늄캔을 수거 · 세척 후 분리배출해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활성화에 앞장섰다.



- 울산 북구 농소3동협의회(회장 배두환)와 부녀회(회장 권성숙)도 지난 6월 19일 마을 환경정화활동으로 관내 119안전센터 일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
- 경기 구리시 교문2동협의회(회장 배상은)와 부녀회(회장 김복희)는 지난 6월 20일 관내 기관단체들과 함께 장자대로변에 여름꽃 3,000송이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는 화단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 경기 안성시 양성면협의회(회장 오민근)와 부녀회(회장 김향자)는 지난 6월 16일 '좋은 이웃 만들기 꽃길 양성' 사업으로 필산리 한천 꽃길에 이팝나무 72그루를 심었다.
- 경기 여주시 강천면협의회(회장 손호천)는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여흥동협의회(회장 임창업)는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각각 도로변과 하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 경기 양평군 용문면협의회(회장 최성현)와 부녀회(회장 신금교)는 지난 6월 24일 용문산 일주문 앞에서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을 진행하고, 분리배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공동체 문화 조성

- 대전 서구부녀회(회장 김화자)는 지난 5월 30일 기성동 중촌꽃마을 일대에서 매실을 수확해 매실청을 담갔다.



- 대전 대덕구 대화동협의회(회장 조태근)는 지난 6월 26일 중앙경로당에서 여름철을 대비해 벌레 퇴치 포충기를 설치했다. 회덕동협의회(회장 이순웅)와 부녀회(회장 전유진) 같은 날 신대노인복지관에서 '새마을이동빨래방' 활동을 전개했다.
- 광주 남구 월산4동협의회(회장 송병운)는 지난 6월 10일 불법투기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 지역에 상자 텃밭(화단) 가꾸기를 실시했다.
- 직장 · 공장 충북 제천시협의회(회장 박경배)는 지난 6월 21일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을 준비해 220여 명에게 대접했다.



- 충북 보은군 삼승면협의회(회장 유병구)와 부녀회(회장 김미경)는 지난 6월 27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오래된 쓰레기를 정리하고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을 펼쳤다.
- 문고 충북 영동군지부(회장 이순복)는 지난 6월 24일 매곡면 문고회장 자택에서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매곡면협의회(회장 이택재)와 부녀회(회장 손옥순)는 지난 6월 16일 일손부족 농가를 찾아 '포도봉지 씌우기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추진했다.
- 충북 단양군새마을회(회장 오수원)는 지난 6월 18일 단양수호

청년새마을연대와 도곡리 마늘농가에서 '생산적 일손 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 충남 보령시지회(회장 추동신)는 지난 6월 20일 보령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무물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소년 · 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300세대에 5kg씩 개별 포장해 전달했다.
- 충남 당진시지회(회장 한민섭)는 협의회(회장 김성권), 부녀회(회장 이순희), 직장공장협의회(회장 김선옥)와 지난 6월 20일 새마을회관 별관에서 밑반찬 6종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120세대에 전달했다.
- 충남 부여군 부여읍부녀회(회장 강순예)는 지난 6월 12일 능산1리 저소득 홀몸 어르신 댁에서 생활환경 정비와 폐기물 수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은산면협의회(회장 이우복)와 부녀회(회장 김혜숙)는 지난 6월 19일 경동리 휴경지에 정작한 감자를 수확했다.



- 충남 청양군 장평면협의회(회장 장갑철)와 부녀회(회장 전옥자)는 지난 6월 13일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댁의 도배와 장판 교체, 대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 충남 예산군 대술면협의회(회장 최진완)와 부녀회(회장 이화순)는 지난 6월 20일 화산리 휴경지에서 '감자 캐기' 활동을 펼쳤다. 삽교읍부녀회(회장 박미자)는 지난 6월 28일 관내 홀몸 어르신 10세대에 밑반찬을 전달하고 '말벗 도우미' 활동을 했다.
- 충남 금산군새마을회(회장 길근섭)는 지난 6월 20일 금산종합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체육관에서 내빈과 남녀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새마을회 한마음대회'를 성료 했다.

- 경북 의성군 옥산면협의회(회장 손영화)와 부녀회(회장 정은자)는 지난 6월 14일 관내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를 수리하고 청소해 전달했다.



- 경북 고령군새마을회(회장 박주옥)는 자매결연단체인 대구 남구 새마을회(회장 이현숙)와 지난 6월 10일 일손이 부족한 개진면의 농가를 찾아 감자 수확에 손을 보탰다.
- 경북 울진군 울진읍부녀회(회장 노현정)는 지난 5월 29일 부녀회사무실에서 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과 차상위계층에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

- 대전 유성구 전민동부녀회(회장 류연희)는 지난 6월 22일 근린공원 일대에서 깨끗한 내고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온천2동협의회(회장 오영환)와 부녀회(회장 유미숙)는 지난 6월 20일 장대동 증봉공원 놀이터에서 제조작업 및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 광주 남구 주월2동협의회(회장 박재상)와 부녀회(회장 조경옥)는 지난 6월 29일 관내 주택가에서 장마 대비 하수도를 정비하고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광주 광산구 운남동협의회(회장 변광희)와 부녀회(회장 김혜선)는 지난 6월 25일 관내 도로변에서 꽃 심기 활동을 펼쳤다.
- 충남 홍성군 장곡면협의회(회장 김기섭)와 부녀회(회장 박희숙)는

지난 6월 21일 도산리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동을 펼치는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충남 서산시 해미면협의회(회장 박연신)와 부녀회(회장 최지희)는 지난 6월 23일 관내 하천변 도로 제조작업을 실시했다. 고북면협의회(회장 윤병춘)와 부녀회(회장 김연상)는 지난 6월 22일 관내 주요 도로에서 제조작업을 실시했다.
- 충남 논산시 노성면부녀회(회장 전순남)는 지난 6월 28일 관내 수목 진지 활동과 함께 도로변 제조작업을 실시했다.
- 충남 서천군 문산면협의회(회장 구자길)와 부녀회(회장 최금자)는 지난 6월 28일 깨끗한 문산 만들기 활동의 하나로 폐비닐, 폐농약병, 공병 등을 수거해 분리하는 '숨은자원 모으기' 사업을 전개했다.
- 경북 안동시 명륜동부녀회(회장 이명미)는 지난 6월 19일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와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경북 영주시 안정면협의회(회장 김상규)와 부녀회(회장 차명숙)는 지난 6월 20일 관내 도로변의 풀베기 사업과 주변 정화활동을 펼쳤다.
- 경북 칠곡군 기산면협의회(회장 유광식)와 부녀회(회장 이해자)는 지난 6월 28일 관내 설치된 폐농약병수거함의 정리 작업을 실시했다.



- 경북 예천군 유천면협의회(회장 최경진)와 지보면협의회(회장 정영복)는 지난 6월 16일과 21일 각각 관내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전개했다.

전북 · 전남 · 경남

공동체 문화 조성

• 전북 김제시 교월동부녀회(회장 정순임)는 지난 6월 15일 '어름맛이 사랑의 계절 김치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경로당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 전북 익산시 영등1동부녀회(회장 이인옥)는 지난 6월 22일 관내 중증질환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 28세대에 밀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평화동부녀회(회장 조종옥)도 지난 6월 13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30세대에 장조림 등 밀반찬을 전달했다.

• 전북 진안군부녀회(회장 이한옥)는 지난 6월 10일 밀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150여 세대에 전달하며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사랑의 밀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전북 임실군부녀회(회장 심미혜)는 지난 6월 22일 신평문화회관에서 열무김치 2,500kg(250통)을 담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엄마 찬스~ 사랑의 밀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

• 전북 고창군부녀회(회장 문원애)는 지난 6월 22일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150여 명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2023 제29회 효사랑 어울마당' 사업을 전개했다.

• 전북 무안군지회(회장 권명식)는 지난 6월 20일 '사랑의 밀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해 직접 담근 물김치를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00세대에 전달했다.

• 전북 장수군지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장수군 자원봉사센터 내 빵굽터에서 직접 구운 썬 카스텔라 빵 870개와 음료수를 7개 읍·면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 전남 순천시 조곡동부녀회(회장 손윤자)는 지난 6월 16일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50세대에 직접 만든 밀반찬 3종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을 펼쳤다.

• 전남 목포시 대성동부녀회(회장 문미숙)는 지난 6월 25일 관내 홀몸 어르신, 취약계층 2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이·미용' 활동을 펼쳤다.

• 전남 여수시 미평동협의회(회장 김유문)와 부녀회(회장 임혜정)는 지난 6월 24일 고락경로당을 방문해 에어컨 필터와 선풍기의 먼지를 제거하고, 경로당 주변 청결활동을 실시했다.

• 전남 장흥군새마을회(회장 김일진)와 직장·공장협의회(회장 김정원)는 지난 6월 13일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의 마을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 전남 강진군부녀회(회장 전봉덕)는 지난 6월 24일 국, 계절김치, 반찬 3종 등 직접 만든 밀반찬을 관내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했다.



• 전남 무안군 무안읍협의회(회장 백계복)는 지난 6월 12일 무안읍 해시앙 아파트에서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태극기 조기계양을 독려하는 '나라 사랑 태극기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 전남 함평군부녀회(회장 서옥란)는 지난 6월 6일 회원들과 함께 밀반찬 7종을 준비해 소외계층 150세대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사랑의 밀반찬 전달' 사업을 실시했다.

• 전남 신안군 압해읍부녀회(회장 이향미)는 지난 6월 8일 목포시

전북 · 전남 · 경남

죽교동 자생단체연합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고 양파를 수확 '농촌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 경남 함안군 칠원읍협의회(회장 김경수)와 부녀회(회장 김순선)는 지난 6월 28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맥의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낡은 전기 배선 정비 및 주택 내 청소를 진행했다.

• 문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분회(회장 이외선)는 지난 6월 22일 날개 지역아동센터에 4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 경남 고성군 구만면협의회(회장 김종렬)와 부녀회(회장 강현순)는 지난 6월 26일 화림리 당산마을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도배·장판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대가면협의회(회장 최부찬)와 부녀회(회장 이인순)는 지난 6월 20일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간식 꾸러미를 준비해 19개 마을의 경로당에 전달했다.

• 경남 김해시 진영읍협의회(회장 김종천)는 지난 6월 19일 관내 경로당 4곳을 방문해 홀몸 어르신 맥 대형 이불을 수거해 세탁 후 전달하는 '찾아가는 빨래방' 활동을 실시했다.



• 경남 남해군 이동면협의회(회장 박영호)와 부녀회(회장 박춘화)는 지난 6월 9일 새마을 텃밭에서 지난 3월에 심은 감자 800kg을 수확하고, 이 중 100kg을 이동면 라라 공유냉장고에 기탁했다.

• 경남 하동군 고전면협의회(회장 정태호)와 부녀회(회장 고문점), 문고(회장 부영희)는 지난 6월 16일 관내 취약계층 24세대를 방문해 직접 만든 반찬과 여름 티셔츠를 전달했다.

• 경남 함양군지회(회장 조명환)는 지난 6월 14일 11개 읍면지도자들과 함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를 방문해 양파 손 자르기, 양파 캐기, 비닐 수거 작업 등 '농번기 일손 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 경남 거창군부녀회(회장 신영애)는 지난 6월 26일 이·미용 재능기부자 15명과 함께 주상면 연교마을에서 '찾아가는 이·미용 재능 나눔' 활동을 펼쳤다.

탄소중립 실천

• 전남 보성군새마을회(회장 임영서)는 부평1동 주민회와 지난 6월 17일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하기로 협의했다.

• 전남 영암군 청년새마을연대(회장 조승완)는 지난 6월 17일 월출산 기찻길 주변의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쓰레기 줍기 등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실시했다.



• 전남 무안군 일로읍부녀회(회장 이복례)는 지난 6월 23일 깨끗한 무안 만들기를 위해 백련길 건강생활도로 2.5km 구간의 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쳤다.

• 경남 거제시 사등면협의회(회장 최형철)와 부녀회(회장 오영숙)는 지난 6월 23일 신거제대교 군집기 새마을기 교체 작업 및 새마을 화단 풀 메기 작업을 실시했다.

• 경남 함천군지회(회장 박진식)는 지난 6월 29일 남정 교차로 화단과 함천댐 주변 원형 화분에 여름꽃을 심었다.

• 경남 김해시 장유3동부녀회(회장 서영희)와 한림면협의회(회장 최희철)는 지난 6월 20일과 22일에 각각 관내 버스정류장의 불법 스티커를 제거하고, 의자와 외벽청소를 했다.



새마을 통통통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5+6월호 독자 의견 당첨자

고도영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작은 나눔과 기부가 누군가의 희망, 꿈, 행복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종>을 읽으면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웃과 함께 하는 새마을정신을 되새기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전 세계가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김희

충북 단양을 구석구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집콕생활이 익숙해졌는데, 아이들과 여행한다면 단양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호에는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는 가벼운 여행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세빈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도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나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얼마든지 지구의 선순환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3 Global Saemaul Undong Ministerial Meeting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July 5(Wed) - 7(Fri), 2023
BEXCO, Busan



Hosted by



Organized by

